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대장·유방·폐·위, 4대 암 치료 1등급 기관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일 발표한 ‘4대 암 걱정성평가’에서 4대 암을 잘 진료하는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은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등 암별로 19~22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지난해 심평원 평가결과 대장암과 유방암은 5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으며, 폐암은 4년 연속, 위암은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조성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은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써 급성기 뇌졸중에 이어 주요 암 질환에서도 전문 인력·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등 표준화된 진료시스템을 잘 갖춘 병원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 보현사 태연스님, 병원발전기금 기부

대구시 소재 사찰 보현사 태연스님이 지난 1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태연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입원 중 “불교종립대학병원인 동국대일산병원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에 기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불교종립 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뜻을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조성민 병원장은 “소중한 정재를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되어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과 박철용 교수, ‘미얀마 무료 개안 수술’ 의료봉사 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박철용 교수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미얀마 카친주 미치나시에서 실명환자들을 위해 무료 개안 수술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박철용 교수를 비롯한 최보운, 강예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해 의료봉사지원을 통해 미얀마 주민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미얀마의 불교 의료 봉사 재단인 Sitagu 그룹과 서울 남산 라이온스 클럽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총 7명의 우수한 안과 전문의와 6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봉사 의료진들은 5일 동안 1000여 명의 환자에게 안과 진료를 비롯해 300여 명의 실명 환자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아 주었다.



심장혈관내과 김지현 교수, 일산서구보건소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 김지현 교수는 지난 6월 7일 일산서구보건소 주최 일산서구보건소 건강마루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고혈압 예방관리’를 주제로 고혈압에 대한 설명과 고혈압의 증상, 고혈압 치료 및 예방과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치료에 대해 간단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현 교수는 “고혈압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위험인자이므로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